

계양구, 도서관 마당에서

피어난 감동의 멜로디

(재)인천광역시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동양도서관(관장 황하영)은 9월 7일, 도서관 입구 야외 부지에서 '핸드벨 연주회 및 요기조기 음악회'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멀리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의 식전 무대는 올림 핸드벨 콰이어 연주단이 장식했다.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결과보고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Silent Night〉, 〈미녀와 야수〉, 앵글곡 〈My way〉 등 친숙한 곡들이 연주되어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장애인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무대는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문화적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이어진 본 공연에서는 인천문화재단 뮤직 엠베서더로 활동 중인 브라운 사운드가 일렉기타와 현악 4중주의 콜라보 〈콘서트 세계〉를 선보였다. 이승철밴드 기타리스트 박창곤이 함께한 이번 무대는 비발디의 사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환 구청장은 “도서관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혀가겠다.”라고 전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주민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서구, '2025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6일 아라인천 여객터미널 일원에서 K-water(지사장 김지웅)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5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에 약 6,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카약 축제는 아라뱃길의 수변 자원을 활용한 대표적 수상레저 체험 축제다.

행사 당일 아라뱃길을 찾은 참가자들은 전문 안전요원의 지도 아래 카약, 패들보드, 인디언카누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체험했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 나무 놀이 체험 등 체험 부스와 함께 소년소녀합창단, 태권도시범단, 국민축제기획단 버스킹 공연, 지역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아라뱃길을 비롯해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라며 “앞으로 수상스포츠 인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구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2025 인천 웰메디 페스타' 성황리 종료... 1만여 명 참여

9월 4일부터 7일까지 상상플랫폼 외 강화, 송도, 영종 등

'Forest, for rees(휴식의 숲)'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열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역 상상플랫폼을 비롯한 권역별 행사장에서 열린 '2025 인천 웰메디 페스타'가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이래로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FOREST, for rest(휴식의 숲)'을 주제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생활형 웰니스 축제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기존의 전시회 내 홍보관

운영에서 벗어나 단독 행사로 확대해 규모를 키웠으며 강화·송도·영종 등 권역별로 특별 야외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 열기를 더했다.

메인 행사장인 인천역 상상플랫폼에서는 ▲뽕느의 힐링 스트레칭 ▲비타민신진지의 리프레시 필라테스 ▲남지현의 K-바레 등 피트니스 세션과 ▲이혈·오행 테라피, 퍼스널컬러 진단 등 체험존이 운영됐다. 또 웰니스 피트니스 예약 플랫폼 '오봇'과 협업한 홍보관도 설치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역별 프로그램도 인기를 모았다. 9월 4일 강화 고려궁지에서는 잠시

섬 빌리지와 함께한 '노을·별빛 요가 페스티벌', 5일 송도 트라이볼 광장에서는 '힐링 별빛 요가·명상', 7일 영종 씨사이드 파크에서는 '영종도 요가 페스티벌'이 열려 탁 트인 자연과 도심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행사와 함께 열린 '인천 웰메디 융복합 포럼'에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3분기 인천 웰메디 정례회의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과 판촉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2021년부터 웰니스 관광지 육성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선도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이번 페스타의 성과를 바탕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콘텐츠를 더욱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에도 선제 대응해 '웰메디 도시 인천' 브랜드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인천 청년주간'을 운영하며 '청년의 힘! 인천의 내일'을 주제로 청년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청년주간은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1주간 이어진다.

심하린 기자

제25회 소래포구축제, 9월 26일 개막

수도권 최대 재래어항인 인천 소래포구에서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26~28일 사흘간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일원에서 제25회 소래포구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소래포구의 역사와 전통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생태축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축제 기간 메인무대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다.

첫날은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남동구립 풍물단·여성합창단 공연'이 이어지며, 개막식에는 만능 트로틀 박서진과 국악인 전영랑 등의 축하공연과 환상적인 '소래바다 오프닝 드론쇼'가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가하는 '열린 노래자랑'과 '수산물 경매&레크리에이션', 해양환경 보전을 주제로 한 '어린이 인형극'이 진행된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소래 K-팝 댄스 나이트'와 'DJ 합합 콘서트'도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마지막 날에는 남동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남동 예술인 콘서트'와 '인천 시티발레단 발레 공연'에 이어 감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와 가야금 연주단 가야 등이 출연하는 '폐막 기념공연'과 '소래바다 클로징 드론쇼'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무대 공연뿐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어린이를 위한 '보트 낚시', '소금 놀이터', '갯벌 놀이터', '바다 에어바운스' 등이 운영되고, 'K-Culture 체험 부스'에서는 한복 착용, K-팝 댄스 배우기, K-뷰티 메이크업 시연 등 한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ESG 친환경 체험 부스', 다양한 '예술 체험 부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소래 플리마켓' 등 볼거리와 참여 기회가 풍성하다.

소래포구의 전통을 계승하는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만선을 기원하는 '서해안 풍어제'가 열리고, 장도포대터에서는 '소래포구 역사 전시'를 통해 염전과 어시장, 소래철교 등 소래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강화군, 노후 맨홀뚜껑 교체 사업 확대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주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강화군은 지난 상반기 1단계 사업을 통해 군 예산 4천5백만 원을 투입, 강화읍과 길상면 일대 노후 콘크리트 맨홀뚜껑 120개를 주철 맨홀뚜껑으로 교체한 바 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인천시로부터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해 추가로 132개의 맨홀뚜껑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대통령실 방문해 특수교사 순직인정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협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8월 30일과 9월 6일 이틀간 이주배경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탐방 프로그램 '다(多)함께 꿈찾기'를 서울대학교와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진학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산업인력개발학과, 아태물류학부 등 관련 전공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도서관 및 전공 학과 건물 탐방 ▶멘토와 함께하는 전공 탐색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이후에는 찾아가는 멘토링 '진로고민 상담쇼'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 참가 학생은 “대학생 선생님들과 캠퍼스를 둘러보며 이 학교에 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진로 설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들이 인천에서 성장해 한국과 이주배경 국가에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웅진군,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행사 진행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웅진군가족센터(센터장 신희경)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40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결혼이민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해동용궁사, 송도 해상케이블카, 태종대, 아쿠아리움, 해변열차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

는 시간을 가졌으며, 섬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소속감을 다졌다.

신희경 센터장은 “각기 다른 섬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달짝~!
뒷좌석까지 안전을 채우세요

뒷좌석 안전벨트도
CHECK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 무려 3.7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